



분유체화 문제



강 춘 성
경남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

1. 누적되는 분유

예년 같았으면 성수기에는 원유가 모자라고 비수기에는 원유가 남아 분유를 만들어 성수기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수입을 하여 원유수급에 큰 차질없이 낙농산업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95년 우유유질 논쟁으로 인한 소비둔화, 수입개방에 따른 모조분유의 과다한 수입, 계속되는 시유소비를 둔화시키는 여러요인들과 매스컴의 과장 보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유소비를 억제시켜 분유재고는 누적되고 있다. 성수기마저 값싼 수입분유로 인해 국내산 재고분유가 소량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의 계속은 농민들에게 낙농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속수무책인 것 같다. 재고분유로 인해 낙농가나 낙농가 조직인 협동조합이 겪고 있는 피해가 있다고 무역위원회에서 확정은 하였건만 금년도 사용분은 이미 수입되고 있다니 올해도 재고분유가 소진되리라는 희망을 가질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무척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과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낙농가들이 뜻을 모아 정책당국이 낙농업을 살려야 되겠다는 확고한 정책방향이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유의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몇자 적어본다.

2. 분유체화의 피해현황과 그 원인

분유의 재고는 95년 4,000여톤 수준으로 적정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우유 유질 논쟁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96년 5월 15,000톤의 재고를 정점으로 성수기를 지내면서 10,000톤으로 감소하였으나 97년 1월 비수기를 맞이하여 분유 생산업체에서는 몰려드는 잉여 원유를 모두 분유로 가공조차 힘든 상황이다.

낙농기반자체에 타격을 가한 낙농 역사상 유례없는 현재의 분유 재고 체화현상은 종전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국내생산된 원유에 국한하려 소비만 확대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분유 수요업체들이 보다 값싼 외국산 분유류에 의존하면서 국산 분유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분유로 정당하게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제품 형식으로 수입하여 분유를 이용함으로써 값싸게 외국산 분유를 대체 사용하는 것이다.

「분유」로 수입할 경우 즉 탈지분유나 전지분유를 수입할 경우는 정부가 UR협상에서 관세율을 220%로 상향조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회피하여, 분유가 대부분이면서도 타식품을 섞어 들어오는 조제품 즉, 모조분유로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이 40%이므로 훨씬 값싸게 식품 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내 식품업체들이 값싼 모조분유에 눈독을 들여 수입하면서 국산 분유는 그대로 창고에 쌓아 두어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경우 일차적으로 낙농가의 보호가 목표이므로 분유수입을 추진할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유조합보다 유가공장을 보유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조합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유조합이나 제품생산 조합이나 사육업체에 원유를 판매하던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후 재계약을 기피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재고 증가가 많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입 모조분유 증가로 인해 국내 원유생산을 억제시켜,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내산 분유의 사용기반을 상실시켰다.

유제품 수입동향

구분	'92	'93	'94	'95	'96·7
유제품 수입량 (전년대비)	45,478 (△14.7%)	56,252 (23.7%)	76,396 (35.8%)	98,793 (29.3%)	31,976 (△15.6%)
원유 환산량(A)	386,563톤	478,142	649,366	839,741	271,796
국내 원유생산량(B)	1,816,121	1,857,873	1,917,398	199,445	898,809
지급율(B/A+B)	82%	80%	75%	70%	77%

주) ①수입 유제품은 우유, 분유, 연유, 유장, 버터, 치즈등 낙농품 37개 품목 기준
②원유환산량 : 수입량×8.5

모조분유 수입동향

구분	93(A)	94(B)	95(C)	96·5	증가율	
					C/A	C/B
총유제품수입량(가)	56,252톤	76,369	98,793	31,976	175.5	117.5
모조분유수입량(나)	3,217톤	15,560	28,007	13,359	870.6	180.0
점유율(나/가)	5.7%	20.4%	28.3%	41.7%		

국산분유는 창고마다 쌓여 기반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 아우성인 터에 모조분유 수입을 급증하고 있어, 분유생산자체가 곧 피해와 직결되고 있다. kg당 6천원대의 분유제조원가가 3천원대에서 판매되거나 그것도 아예 수요자체가 없는 실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우유소비구조의 특징인 계절적인 비수기 및 토, 일요일의 주간 비수기에는 부득이 분유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유자체의 판로가 없어져 버렸으니 생산비는 커녕 도산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96년 5월말 현재 전국 분유재고는 15,721톤(축협조사)으로 94년보다 10.1배, 95년말보다 4.1배 증가함으로써 어려움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재고량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976억원에 달한다.

특히 발효유의 경우 수입 모조분유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그 원료

를 「혼합분유」로 표기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되는 모조분유는 93년 3,127톤에서 95년 28,007톤으로 무려 870%나 증가함으로써 수입 의존율이 얼마나 커지는지 드러나고 있다. 수입 모조분유의 시장 점유율은 93년 1.6%, 94년 7.0%, 95년 12.2%, 96년 1~4월간 14.0%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냈다.

국내에서의 모조분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유제품의 시장이 잠식 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품업체들의 국산 분유 기피로 탈유업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낙농업의 활로 개척을 위한 유제품이나 식품의 개발보다는 값싼 수입 모조분유 사용을 극대화하려는데 집중함으로써 낙농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둘째, 업체간의 자사 상품 선전

분유재고동향

구분	'94(A)	'95(B)	'96.5(C)	증감	
				C/A	C/B
분유재고량 (축협)	1,517톤 (92)	6,565 (1,119)	15,271 (4,532)	1,006.7% (4,926.1)	232.6% (405.0)
평가액	8,550백만원 (511)	41,990 (7,153)	97,601 (27,700)	1,141.5 (5,420.7)	232.6 (387.3)

자료 : 축협중앙회

주) ① 평가액은 전지분유 '94년 5,100, '95. '96년 6,000원/kg,

탈지분유 '94년 5,700, '95. '96년 6,500원/kg

② ()내서는 축협의 분유재고 현황임

만을 위한 과열 우유 유질 논쟁과 무책임한 언론보도 때문에 소비자가 우유를 외면해 분유가 적체되어 이를 제조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판매 손실금은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유파동의 여파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96년도에는 끝내 2개사는 도산하였고, 일부업체는 매수자를 찾고 있다.

셋째, 잉여원유의 분유 임가공 비용 및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도 과중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체 보관 창고의 현재를 넘어 임대 창고 보관료며 자본재에 대한 자금부담, 이자 발생등으로 업체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넷째, 국내 유제품중에서 수입 대체가 늘어나게 되었고, 늘어난 만큼의 낙농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지난 '96년 7월 1일부터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자율화 되었다. 이로 인해 각종 유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더욱 치즈의 수입은 국내산 치즈 시장을 압박해서 국내산 우유의 7% 이상이 치즈원료로 소비되었으나 이 치즈원료유의 갈 곳이 없

게 되었다.

국내산 우유의 70% 이상을 점하는 시유시장만은 우리 나라산 우유가 지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여 왔으나 그 예상이 점차 흐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시유를 한국에 수출하려고 한 단계씩 좁혀 오고 있다. 한국에 있는 미군을 위시하여 미국관련기관원은 미국에서 탈지분유와 기름을 들여다가 환원우유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미국 본토에서 시유를 직접 가져다가 먹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연간 약 7천만톤, 우리 나라는 2백만톤, 미국에서 '95년도에 전년 대비 3%의 우유를 증산토록 쿼터량을 조종하였다. 그 3%가 우리나라 1년간 생산량과 맞먹는 숫자다. 한·미통상협상시 항시 들고 나오는 것이 우유의 유통기한을 현재의 7주(週)를 풀어서 자유화하라는 것이며, WTO에 고발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98년까지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폐지 자유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미국은 1년을 참지 않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시유까지 수입된다고 하면 우리 나라의 낙농

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다섯째, 분유재고 철회에 따른 낙농불황분위기에 따라 낙농가의 위축과 전업화에 커다란 차질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의 짧은 낙농역사속에서 선진낙농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확보가 우선이고, 이를 위한 전업규모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낙농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생산제한이 가해지자 전업화에 역행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조합경영이 어렵게 되고 정상적인 원유대 지급이 어렵자 젓소도태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인한 낙농가의 소득상실과 소값하락에 따른 재산 감소는 엄청나다. 부득이 젓소도태 확대로 경산우 도축이 늘면서 소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3. 분유체화 대책

먼저, 식품업체들의 수입 모조분유 사용 급증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수입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UR협상으로 분유는 관세를 220%로 높였기 때문에 마치 수입의 위협을 차단시킨양 하였지만 식품업체들은 모조분유 수입에 주력하고 있다. 낙농 선진국인 일본은 모조분유의 경우 관세 35%에다 부과금(mark-up)을 최고 1363엔 까지 부과하고 있다. 관세에다 부과금을 더 할 경우 모조분유 수입가격이 국내 제품가보다 높게 되어 수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모조분유 뿐만 아니라 42개 유제품 모두에 적정 부과

금 부과 및 할당량 설정으로 2천년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도록 하고 있음은 경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더 이상 피해가 가중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필요한 조치로는 모조분유의 관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 현행분유의 관세율은 211.2% 처럼 상향조종 함으로써 수입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품목을 재분류하여 식품업체들의 수입을 최소화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 반드시 정부의 정책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일이다.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을 소비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결과로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우유 생산, 공급방안 모색을 위한 낙농심포지움에서 소비자 단체인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의 발표내용인 소비자는 건강과 식품안전도에 민감하고 저렴한 가격의 유제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건강식품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에서는 국내우유 및 분유가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큰 저항없이 충분한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분유체화 해소 대책은?

첫째, 식품업체들의 수입 모조분유

사용 급증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수입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더 이상 피해가 가중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필요한 조치로는 모조분유의 관세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를

확대시키는 일이다. 셋째,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고, 가공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자사제품 선전만을 위한 교묘한 선전을 규제하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산 분유나 우유가격을 충족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국내 낙농업 자체가 아직 외국산 가격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무턱대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일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산 우유와 분유가 외국산에 비하여 우수한 부분을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유의 생명인 신선도, 보관 유통의 장점을 홍보하여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의 차별화를 인지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스스로 국산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법제화 되어야 할 것

이고, 가공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일개 회사가, 일개 단체가 수급 조절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 테두리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전국적인 생산, 소비를 조절할 기능이 전국 단위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온 낙농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될 법안에는 수급 조절 기능과 검사공영화, 집유의 일원화, 유대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성수기에는 원유가가 낮고 유량도 적으며 비수기에 원유가가 높고 유량도 많아지는 기현상을 방지할 내용, 정부 지원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과소·과잉생산으로 인한 업체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고품질 우유 생산을 촉진하여 외국과의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확

보호고 집유비등 경비를 절감하여 원가를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4. 적극적인 분유 소진 대책 방안의 시행

'95년 연말부터 시작된 우유소비감소와 분유재고 적체현상은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분유재고가 누증되어 1만5천톤이 체화되는 사건은 낙농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모든 유제품들이 개방되어 모조분유는 관세 40%로 매월 2천 5백여톤씩 수입되고 있다. 모조수입분유는 관세와 제경비를 포함해도 2천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 분유제조 원가가 6천원대이고 보면 값싼 모조분유를 원료로 수입에 치중하여 영리를 노리는 식품업체들의 수입형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

이 분명하다.

모조분유 수입증으로 인해 낙농업계는 분유체화가 심화되자 주로 영세 낙협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재고분유는 쌓여가고 기한은 도래되고 그냥두면 유효기한 만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값을 낮추어서라도 판로를 찾아 수 소문하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체 제품 생산으로 주로 시유나 발효유에 치중하는 영세조합들은 재고가 쌓이는 만큼 적자로 손해를 보는것이 현실이다.

일반유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낙농조합간의 협동과 연대활동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여 국내산 원유의 소비를 촉진시켜 분유가 더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고 재고분유를 정부가 매입하는 등 누적되고 있는 재고 분유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주길 바라고 소비자가 우리 우유를 애용해 주길 바라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식품으로서 우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당국이 낙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울 때까지 영향력이 있는 각계각층에 집요하게 호소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앞장서 풀어보겠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분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생업으로서의 낙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필자연락처: 0591-747-7800)

★ 싸게 팝니다 ★

(알과라발 제품 - 27개월 사용)

- 착유기 : 알프로 시스템, 텐덤 2열 4두(8두 동시착유)
- 사료 자동급여기 : 듀얼, 4스테이션(급여기 4개, 오가 2열 → 두가지 사료 동시 급여 방법, 오가 길이 - 45m)
- 냉각기 : 4t
가격 : 구입가격의 60%에 팝니다.
착유기·사료자동급여기 - ₩60,000,000
냉각기 - ₩12,000,000
- 연락처 : (02)548-1127